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1년 12월 25일(토요일) 제1374호



12월 25일 성탄축하예배, 26일 성탄주일예배
31일 송구영신예배, 1월 첫 주와 둘째 주 선교헌금

예수가 세상에 나셨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온 누리에 임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26일은 성탄주일이다. 이 기쁘고 좋은 날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린다.

12월 25일(토) 성탄축하예배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를 개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부천과 인천온누리교회 오전 9시, 수원과 대전온누리교회 오전 9시, 11시 30분, 남양주와 평택온누리교회 오전 11시, 강동온누리교회 오전 11시 30분, 양지온누리교회 오전 10시(축하 행사 오전 11시)에 막 오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배우 오미희 권사가 사회를 보고, 미스터 브라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방송인 김영우(가수), 남성합창단, 더블레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온누리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주영훈(방송인)이 사회를 보고, 윤형주 장로(가수), 크룩스, 소프라노 신델라, 나인티스덕, 남성합창단, 교역자 특순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12월 26일 성탄주일예배에서는 칸타타를 선보인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주찬양 찬양사역팀이 '성탄의 축복'을 주제로,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주임재 찬양사역팀이 '할렐루야 찬양의 날'을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부천온누리교회는 1~2부 예배, 수원온누리교회 1~4부 예배, 남양주온누리교회 1~2부 예배, 인천온누리교회 1~4부 예배, 평택온누리교회 1~2부 예배, 강동온누리교회1~3부 예배에서 칸타타를 한다. 대전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은 2~3부 예배에서 러빙유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캠퍼스	12월 25일(토) 크리스마스 콘서트(성탄축하예배)	12월 31일(금) 송구영신예배
서빙고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 4부 오후 3시	1부 오후 7시 / 2부 오후 9시 3부 오후 11시
양재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2시	1부 오후 7시 / 2부 오후 9시 3부 오후 11시
부천	오전 9시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수원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대전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남양주	오전 11시	오후 11시
인천	오전 9시	1부 오후 9시 / 2부 오후 11시
평택	오전 11시	오후 11시
강동	오전 11시 30분	오후 11시
양지	오전 10시(축하행사 오전 11시)	오후 11시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금)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대전(세종), 인천온누리교회 오후 9시,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온누리교회 오후 11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신년예배는 1월 1일(토) 토요주일예배로 대체된다.

한편 1월 1일(토)과 2일(일), 8일(토)과 9일(일)에는 2000선교 주최로 '2022년 선교헌금작정' 행사가 열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집_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2-14면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2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지난 10년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허물 많은 제가 온누리교회 위임목사가 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을 갑자기 떠나보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하용조 목사님과의 이별의 슬픔이 깊이 남아있는 채로 교회의 안정을 위해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시던 성도님들, 회의로 모일 때마다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조율해 가시던 장로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위임목사로 세움을 받고 지난 10년 동안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해 주시는 목회자들의 팀워크으로, 지혜와 인내로 함께 해주시는 장로님들의 협력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묵묵히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임하였습니다. 귀한 사역자분들의 마음을 다한 동역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난 10년의 사역은 열매 맺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故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수개월 전 병원에서 투석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정상(Summit)이 무엇인지 아냐? 리더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는 거야.”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의 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과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Acts29의 비전으로 똘똘 뭉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비전을 향해 걸어왔던 10년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여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계시지 않을 때 잘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누군가 그동안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 제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와 사회의 촉매제(Catalyst)가 되도록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한국 교회와 사회와 열방에 흘려보내기 위해 도움과 협력을 요청하는 많은 사역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때로 외부 협력사역이 많아져 교회 내 여러 사역과 공동체를 돌보는 데 부족함이 있기도 하였지만, 모든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성숙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사역은 연말 대학청년들이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하면서 모든 선물에 온누리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이웃과 가장 가까운 건강한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선물해 온 일입니다. 대학청년들이 토요일이나 주일 오전에 집 근처 교사나 봉사자가 필요한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한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노숙인들을 섬기는 산마루교회에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을 파송한 일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의 위임목사이지만, 산마루교회의 부목사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족한 10년의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했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목양도 부족했고, 참 미숙함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미흡한 목회능력으로 인하여 답답함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주신 박종길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리더십을 격려해 주시며 조력해주신 모든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욱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의 쇄빙선(Ice-breaker)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온누리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받은 시대적 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쇄빙선에 탄 선원들은 차디찬 북극의 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며, 지도가 없는 곳에는 지도를 만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으로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련이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 깊은 확신과 하나 됨으로 쇄빙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 되어 이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이재훈 목사 올림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3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이재훈 위임목사 취임,
‘그 아름다운 순례의 과정’







1. 2011년 온누리교회를 위한 기도회. 2.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후보 선정 과정(투표). 3. 2011년 10월 27일 위임예배. 4. 이재훈 위임목사 선서. 5.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

이재훈 담임목사 청빙 과정과 위임예배는 한국 교계와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場)이자,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진 기도모임과 장로들의 헌신으로 경쟁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의 과정’이었다.

2011년 8월 2일(화)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당회운영위원회는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8월 4일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고, 8월 9일 임시당회를 열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8월 27일 1차 후보 9인 선정, 9월 2일 청빙심사기준에 부합한 후보 6인 면접 대상 후보 선정, 9월 10일 4인 심층면접 대상 후보로 확정, 9월 15일 심층면접 실시, 9월 16일 최종후보 심사, 9월 17일 최종후보 선출 투표, 당회 만장일치로 이재훈 목사 선출, 9월 24일 공동의회 개최 ‘위임목사 청빙동의안’에 온누리교회 성도 4,757명이 참석 4,421표(92.9%)로 가결해 이재훈 목사가 제2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됐다. 2011년 10월 27일 위임예배를 드리고 제2기 온누리교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기 온누리교회 실천적 목회철학

‘3닻 5돛’

2기 온누리교회는 2014년 ‘온누리 정책포럼 행사’에서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Acts29 비전을 기초로 ‘3닻 5돛’이라는 실천적 목회철학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재훈 위임목사의 메시지 요약.

온누리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도전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전통 세 가지를 요약하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도전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3개의 닻(Anchor)과 5개의 돛(Sail)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닻

배가 항해하는 데 닻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닻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고정시키고 배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닻과 같은 비전을 가진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전통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선교의 영성’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이 ‘선교의 영성’입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고,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헌금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헌금작정이 온누리교회에 있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창의적인 변화가 문화에 들어 있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은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하나 됨’이란 각자의 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 성품의 한도 내에서 서로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영성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5개의 돛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해야 할 가치는 ‘돛 비전’(Sail Vision)입니다. 돛(Sail)은 압력과 긴장, 스트레스의 바람을 맞아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돛단배와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돛단배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맞바람이나 순풍,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로로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때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돛단배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전이 있어야 하고, 긴장이 있어야 하고, 모험이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을 때 거룩한 도전이 상실됩니다. 돛이 내려오고 결국 장식품이 되고 맙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사회적인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험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선교사역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나가는 선교사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확실한 선교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형교회를 넘어선 조직적, 유기적 멀티사이트 공동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개척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목회자 개인이 개척하면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멀티사이트를 통한 시스템 중심, 프로그램 중심, 성도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교회와 교단을 넘어서는 한국 교단과 차세대 선교입니다. 차세대 사역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선교’로 바꿔야 합니다.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직적 선교입니다. 전심을 다 해 차세대 선교를 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선교를 넘어서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이 영적인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훗날 역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일터에서 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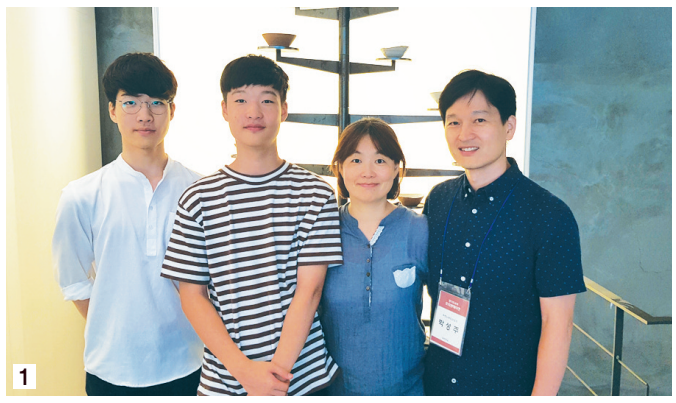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더 깊어지는 Acts29 비전

'확장된 2천/1만 비전', 현장 선교사 2천명으로!

2018년 9월 16일 박성주 선교사를 멕시코로 파송하면서 온누리교회는 선교사 2천 명 파송 비전을 달성했다. 1994년 온누리교회 2천/1만 비전이 선포한 지 24년 만이다. 이 감격스러운 날 이재훈 목사는 '확장된 2천/1만 비전'을 선포했다. 누적선교사 2천 명에서, 현장 선교사 2천 명으로 확대했다.

2021년 12월 21일 기준 78개국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874명(누적 2154명)이 사역하고 있다. 동아시아 6개국 351명, 남아시아 16개국 184명, 중앙아시아 5개국 49명, 소아시아 1개국 49명, 중동 11개국 69명, 아프리카 16개국 60명, 유라시아 8개국 50명, 오세아니아 3개국 6명, 북미 2개국 22명, 중남미 10개국 28명, 국내 20명이다. 앞으로 1천 1백 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야 확대된 2천/1만 비전의 한 축이 완성된다. 온누리교회는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선교스쿨을 운영하고,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를 오픈하기도 했다.







1. 온누리 2000호 파송 선교사 박성주 가족. 2.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 'HARVEST'(2016).
3. 인천온누리교회 전경

옮겨진 선교지 이주민

2기 온누리교회는 옮겨진 선교지 이주민, 탈북민, 난민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 이주민 공동체에는 15개 언어권, 34개 예배, 500명의 이주민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안산, 화성, 김포, 남양주, 평택, 포천 등지에 온누리M센터, 지역아동센터, OGA(Onnuri Global Academy)를 세워서 옮겨온 선교지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언어권별 예배, 다문화 차세대 예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스타트리 아카데미' 등 14개 사역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은 그 역사가 깊다. 1994년 11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로 다문화가정과 관계를 맺고 긍휼사역으로 시작한 것이 이주민 사역의 토대가 되었다. 매년 추석에는 이주민 전도집회 'HARVEST'를 개최해서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에서는 교회 개척을 꿈꾸는 이주민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다. 이주민 성도들을 양육한 다음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몽골, 캄보디아 등지로 귀국한 이주민 성도들이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민 사역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서빙고, 양재, 부천, 대전,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5개 한누리공동체가 있다. 또한 통일위원회, 하나원사역, 기도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누리공동체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전도집회, 공동결혼식 등을 통해서 탈북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난민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터키 등지에서 시리아 난민을, 우간다 등지에서 남수단 난민을 섬기고 있다. 난민들을 위한 돌봄교실, 직업교육, 성경교육, 학교건축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난민사역단체 '피난처'와 동역하고 있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79가정을 섬기는 등의 난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새 예배처소 입당

인천온누리교회가 2018년 5월 착공예배를 드린 지 3년만인 2021년 7월 7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는 교육과 산업발달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에 있다. 새로운 인천온누리교회 예배처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지상 7,692m²(2,327평), 지하 6,284m²(1,900평), 대지면적 4,999m²(1,512평), 연면적 13,975m²(4,227평)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16년 2월 구월동 지하 예배처소를 나와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강당부터 국제 캠퍼스, 송도 컨벤시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288번의 주일예배를 드렸다. 돌아다니며 주일예배를 드린 2016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도 수가 1천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외국인 예배, 차세대 예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유가족 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선교현장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선교사들도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26명(8월 25일 기준)이 코로나19로 순직했다.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유가족을 위로했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유가족을 위해 2021년 8월 비전헌금 7억 6천만 원을 봉헌했다. 이 헌금은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유가족과 코로나19로 순직한 온두라스 목회자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지난 8월 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 위로예배를 드렸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유가족이 보낸 편지

죽음을 넘어 가슴 뜨거운 소망으로

3월 1일로부터 멈춘 것 같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한 한국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남편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을 동시에 흘립니다. 남편의 순직이 저의 책임이라는 극심한 사탄의 참소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낙심되어 지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과 총 38일 동안 중환자실 입원, 그중 30일은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소천 당시에도 기도삼관으로 한마디도 못 듣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막대한 병원비를 정산하고 지금까지 아이들과 저는 슬픔을 마주하고 그의 부재를 오롯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울며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믿고 평안히 그를 보냈고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숨이 멎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해본 적 없음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죽음도 나의 돌봄이다. 내가 그를 날개깃으로 덮었으며 그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제 입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슬퍼해도 좋다고, 오롯이 사랑하는 반려자, 가장 친밀한 친구와 제 신앙의 목사님, 멘토를 잃음을 슬퍼하라 하셨을 때 지금까지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가장 큰 위안을 받았기에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작고 병약한 소년을 만나 친구 삼으시고 60년 꽉 찬 인생을 죽기까지 순종으로 영광되게 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내하며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를 세우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6개월 전 코로나19로 38일 동안 투병하다 스러져간 한 선교사를 기억하며 함께 울어준 한국 교회의 사랑의 손길이 죽음을 넘어 남은 사역을 이어가는 가슴 뜨거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아프리카 땅에 떨어진 남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꽃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지 기대와 소망을 품어봅니다. 전대미문의 재앙 앞에 손 내밀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이재훈 목사님, 함께하신 한국위기관리재단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이화남 선교사, 정현슬, 정예준 드림(남아프리카공화국)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5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사회선교

2014년 1월 20일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신설됐다. 사회선교부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긍휼선교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이 목표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사역으로 영역을 나눠 사역을 하고 있다. 이재훈 목사가 창립 30주년이었던 2015년 표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를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다양한 사역팀이 출범했다. 현재 사회선교부에는 저출산, 환경오염, 가계대출,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혼모, 입양, 은퇴자, 농어촌교회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팀 약 40여 개가 있다.

사회선교부의 활약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2021년 빛을 발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코로나19가 확산할수록 이웃들을 더 가까이 섬겨야 한다"면서 매월 한 차례 이상 사역을 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도 코로나19로 침체 된 농어촌교회를 돕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만 46개 농어촌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물품 지원, 유지보수 등을 했다.

사회선교부 출범과 아울러 온누리교회 공동체에서 '1다락방1사역' 캠페인을 했다. 1다락방1사역은 1개 다락방이 1개의 사역지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이웃들을 방문하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216개 다락방이 1다락방1사역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 남대문 쪽방촌 사역 현장에서 온누리교회 청년과 이웃. 2.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연말에 전해지는 작은 기적 '엔젤트리'

매년 연말이면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세워진다. '엔젤트리'다.

엔젤트리는 미국 교도소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는 2016년부터 재소자를 포함한 소외된 이웃들로 대상을 확대해서 엔젤트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12월이 다가오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웃들의 사연을 엔젤트리에 접수한다. 엔젤트리가 세워지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다퉈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듯한 사랑과 선물을 전달한다. 엔젤트리 사연과 성도들의 연결률이 100%를 자랑한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2015년 2,045건, 2016년 1,543건, 2017년 2,595건, 2018년 3,758건, 2019년 4,558건, 2020년 4,182건, 2021년 5,208건의 사연이 연결됐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에게 보낸 선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흘렀고, 한겨울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옷이 전달되기도 했다. 엔젤트리는 가족, 동역자,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아빠를 전도하는 딸을 도와주고,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로하고, 피아니스트가 꿈인 어린이에게 '메트로놈(metronome)'을 선물하면서 전도하고, 위로하고, 꿈을 응원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공감소비운동'

온누리교회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공감소비운동'을 실시했다. 온누리교회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공감소비운동' 비전헌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각 다락방에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342개 다락방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체 지역과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이웃에게 전달했다. 공동체 구성원 139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80명, 타지역 취약계층 50명, 타지역 교회 42곳, 지역 단체 32곳, 타지역 단체 28곳, 지역교회 26곳이 혜택을 받았다. 공감소비운동 물품 구입 장소는 전통시장 46%, 소상공인 36%, 기타 18% 등의 순이었다. 물품 전달방법은 직접전달(68%), 택배(15%), 기타(14%), 기관을 통한 간접전달(3%) 등이었다.

다음세대를 위한 사회선교 입양 독려, 보호종료아동 쉼터

사회선교부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보호아동을 섬기는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사회선교본부 제이홈(J Home)에서는 입양가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양 전 세미나와 입양 후 세미나, 입양가족 정기모임, 입양가족 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입양의 은혜와 기쁨을 아무리 알려도 매년 발생하는 보호아동을 전부 입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보호대상아동)이 매년 4,500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를 합쳐도 고작 700명 정도만 입양된다(2019년). 보호아동을 섬기는 사역이 필요하다.

사회선교부 제이홈(J Home)에서는 2021년 3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선한울타리사역'을 시작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을 퇴소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매년 2,600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한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시설과 사회의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 여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숙소(울타리)를 마련했고, 남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보호종료아동이 온누리교회에 보낸 편지

"저에게도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에게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온누리교회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낮에는 엄마한테 맞고, 밤에는 아빠한테 맞았습니다. 하도 맞아서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일로 부모님이 상담기관에 연계됐는데, 상담사님이 부모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이들 네 명이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를 보육원으로 보내셨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 있어도 죽고, 보육원에 가도 죽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어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 종료가 돼서 보육원을 퇴소하면 자유가 생긴다고 좋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설을 퇴소하면 누가 저에게 때 되면 밥 주고, 옷 사주고, 챙겨주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보육원을 퇴소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한울타리사역 덕분에 저에게도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갈 데 없는 저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상황이 열악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만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미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보다 사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 K자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6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CGNTV 국내 최초 기독 OTT '퐁당' 출시

2기 온누리교회에 접어들어 CGNTV의 변화와 성장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변화는 '기독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도전이다. CGNTV는 이재훈 위임목사의 제안으로 '미디어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기독 OTT '퐁당'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기독 OTT '퐁당'은 양질의 기독 콘텐츠와 강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개인, 교회, 학교, 소그룹 등 활용 가능성과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어부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기독 OTT '퐁당'이다. 매주 주일 보은군 회남면 여기저기서 모이는 차세대 15명이 기독 OTT '퐁당'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다. 대구 내일교회와 용인 더원사랑의교회는 기독 OTT '퐁당'을 활용해서 교회 양육 시스템을 리모델링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교계에서도 영상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 수요가 폭증했다. 문제는 유튜브의 시청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일으키는 확증편향과 이단의 침투 가능성 등 상당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이단의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기독 OTT '퐁당'의 가장 큰 장점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 서비스다. 기독 OTT '퐁당'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 신앙콘텐츠를 추천한다. 특히 시청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사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튜브 형식 알고리즘의 약점을 대폭 강화해 신앙의 모든 영역을 고루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기독 OTT '퐁당'은 균형 있는 신앙 양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만 5천여 명의 이용자가 기독 OTT '퐁당'을 애용하고 있고, 140여 개 교회가 기독 OTT '퐁당'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기독 영화의 한 획을 긋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CGNTV가 제작한 서서평(1880~1934년) 선교사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2017년)는 한국 기독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 한 해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기록했고, 역대 한국 기독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미주에서도 개봉해서 2만여 명이 관람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크리스천들은 물론 아직 예수를 모르는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CGNTV가 '성공이 아닌 섬김'을 강조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담담하면서도 절절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ICVM 크라운어워즈'에서 해외영화부문 은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국 기독 영화에 한 획을 긋고 사라지는 줄 알았던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군부대에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감동을 재현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과의 협력으로 무려 장병 9만 명이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했다. 육군 6사단에서는 사단장의 특별지시로 1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회를 250차례나 개최했다. 공군교육사에서는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여주고 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군부대 상영 이전에는 평균 1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영화 상영 이후에는 2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작은교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대면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CGNTV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작은교회들을 찾아 나섰다.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작됐다.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전담팀이 전국을 누비면서 '방송 장비 지원 및 방문 컨설팅' 50곳, '캠코더 패키지 지원' 20곳, '온라인 화상교육 및 스마트폰 장비 지원' 200곳 등 모두 270여 곳의 작은교회를 섬겼다. 강북구 미아동 예수나무교회 김정남 위임목사는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온라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군부대와 요양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마포 꿈의교회 신동훈 위임목사도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디어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말씀을 나누는 〈도시락/굿나잇기도, 굿모닝말씀〉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


2


3


4

1. 보은 어부동교회 주일학교. 2.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촬영현장. 3.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군부대 상영회. 4.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지난 10년 CGNTV의 주요 수상 내역

2012년
-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수상

2015년
- 다큐멘터리 〈MK의 고백〉(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선교부문상)
- CGN투데이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 크리스천 기자협회 보도부문 최우수상

2016년
-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2016 KWEBFEST 'BEST BRANDED SERIES' 부문
- 〈KNOCK 미니휴먼다큐〉 시리즈(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문화부문상)

2017년
- 다큐 〈블랙마운틴〉 (ICVM 최고해외영화상 수상)
- KNOCK 〈두근두근 마카롱〉 (2017 서울 웹페스트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 부문 수상)
- CGN투데이 〈숫자로 보는 선교 시리즈〉(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방송 보도부문 최우수상)
-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한국기독언론대상 선교부문 최우수상)
-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묵이의 미니멀라이프〉(한국기독언론대상 나눔기부부문 우수상)

2018년
-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국제기독영화제(ICFF) 최우수상 수상, ICVM 크라운어워즈 해외영화부문 은상 수상, 유럽기독영화제(CEVMA)– 고예산 다큐/다큐드라마 부문 1등 수상)
-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유럽기독영화제(CEVMA) 고예산 드라마 부문 2등 수상)
-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한국기독언론대상 나눔기부부문 우수상)
-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문화부문 우수상)

2019년
- 특집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한국기독언론대상 선교부문 최우수상, ICVM 크라운어워즈 제작비 5만 불 이상 다큐멘터리 동상, 베스트 시리즈 동상 수상)
- 3.1운동 100주년 특집 〈낮은 곳에서 피는 봄〉(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문화부문 우수상)
- 드라마 〈고고송〉(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
- KNOCK 〈미니콤 시리즈〉(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 '베스트 브랜디드 시리즈' 수상)

2020년
- 다큐멘터리 〈그의 제자, 김영길〉(한국기독언론대상 김영길 특별상)
- KNOCK 〈계도왕〉(2020 아시아웹어워즈 베스트 웹 시리즈 부문)

2021년
- KNOCK 〈밭간양반〉(2021 서울웹페스트 '베스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한국기독언론대상 기독문화부문 최우수상)
-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한국기독언론대상 나눔기부부문 우수상)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7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온누리교회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미디어) 사역 확대, 기도와 말씀, 이웃 사랑 실천



1.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드려진 드라이브인 예배.



2.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3. 서빙고 교역자들의 공감소비운동.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당 예배 및 주중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여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전염병 재난에 각 나라와 사회가 우왕좌왕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온누리교회는 국가적, 교회적 위기 앞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재훈 목사의 행동력과 실천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온누리교회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를 십분 활용했다. 특히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온누리신문〉은 교회 예배 송출(실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공지, 중보기도 제목 공유, 성도 참여(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예배도 시도했다. 2020년 4월 12일(부활주일)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진행된 드라이브인 예배는 안전한 방식의 예배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충족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안이었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토요주일예배’를 시작했다. 토요주일예배는 일요일만 주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또 다른 날(토요일)을 엄숙히 지정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에서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토요주일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므로 특정한 날이나 7이라는 숫자조차도 구속력이 없다. 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의식적인 부분은 폐지되었다. 교회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을 따로 떼어놓던 미신을 타파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목회를 도입했다. 예배 접근성을 높이고 전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디어 예배를 신설하고, 미디어사역본부(방송실, 영상실, 전산실, 디자인실, 신문사)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OBC 양육 시작(2020년 4월), 온라인 심방(2021년 4월~11월),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2021년 5월 11일 시작)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의 양육과 돌봄을 위해 목양과 양육을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성을 지키려는 노력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중보기도와 말씀 읽기, 성경필사를 주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도록 인도했다. 그 일환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월~금)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코로나19 퇴치 및 치유, 코로나19 국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장(場)이었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교회에 나와 1시간씩 중보기도를 했다.

코로나19로 차세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면서 어려워진 신앙 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가정에서 하도록 돕는 ‘가스펠 프로젝트’(2020년 6월 6일)도 시작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경공부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듣고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소그룹 나눔을 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필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 개인의 영성 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필사를 했다. 2020년 7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에스라 프로젝트에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참가해 공동체별로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필사했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로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 교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그 예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이어진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평안하라 강건하라’이다. 세 이레 기도회에는 한국의 명설교가 18명이 참여했다. 김경진(소망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김형준(동안교회), 박성민(CCC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원로), 박종길(서빙고온누리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이인호(더사랑의교회), 정갑신(예수향남교회), 주승중(주안장로교회), 최성은(지구촌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 화종부(남서울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세 이레 기도회 실황은 CGNTV와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생중계했다.

2021년 3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진행된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에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원로),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메시지를 전했고,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이재훈 위임목사가 중보기도를 이끌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성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새벽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적 재무장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이재훈 위임목사의 의지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섬김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돌봄과 섬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섬기는 일도 놓치지 않았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운동에 앞장섰다. 202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을 했다. 공감소비운동은 교회가 부활절 헌금과 비전헌금을 각 공동체에 전달하면 공동체 지체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여주고, 구매한 물품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는 일거양득 캠페인이었다. 온누리교회 342개 다락방이 참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8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생명존중 캠페인, 헌혈 캠페인 앞장서



1

온누리교회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핵심이다. 2기 온누리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명존중 캠페인, 헌혈 운동 등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기 온누리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젠더 이슈(퀴어축제, 성평등 문제, 동성혼 합헌 등), 생명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회와 가정, 사회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동성혼 합헌 반대, 낙태 반대 및 태아생명 존중, 목회자 및 교회 회개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어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다. 이 기도회에서 박상은 박사(샘병원미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 김현철 목사(사 프로라이프 고문) '생명의 소리',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미혹의 영, 페미니즘과 낙태자유',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영광을 위한 고난', 이재훈 목사 '예수께서 누워계셨던 자리를 보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활동은 기도회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운동으로 이어졌다. 2021년 9월 22일(수)부터 10월 31일(주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한국본부'가 한국 교계(개신교, 가톨릭)와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하 생명 기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 기도 캠페인은 태아의 소중한 생명과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 크리스천과 교회의 기도운동이다. 생명 기도 캠페인은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는 침묵기도 시위운동으로 전 세계 64개국 900여 개 도시에서 100만 명 성도와 2만 개 교회가 8천 번 이상 개최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생명 기도 캠페인에 온누리교회는 개신교 대표로 참여해서 기도운동을 이끌었다. 총 437명(교역자 84명, 기도봉사자 353명)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낙태 종식과 낙태산업 종사자들이 프로초이스(낙태 찬성)에서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태아생명 존중)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 원동력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재훈 목사의 의지와 결단이었다.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활동은 사회적 나눔으로도 연결됐다. 2021년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혈액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온누리교회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재훈 목사부터 앞장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90일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 948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다.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누리교회가 앞장서면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다.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



3

1.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2.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3. 이재훈 목사의 헌혈 캠페인 참가.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참가자들의 고백

◆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도 망설이던 중 소중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수혈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 박미정 성도

◆ "생애 첫 헌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며 주님이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시연 성도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9

2기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재훈 목사와 함께

온 누리와 함께 보내는 겨울



대학청년부 사랑愛나눔.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사랑愛나눔'

'사랑愛나눔'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 사역이다.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선물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 2012년부터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랑愛나눔'은 2012년 12월 8일 '사랑의 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빈민가, 쪽방촌, 낙후지역 등 생활 보호지역을 찾아가 쌀과 라면, 세제, 칫솔세트, 비누세트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역 첫 해에만 560여 가구에 예수의 사랑을 전달했다. 여호수아공동체 개포동 구룡마을 150가구, 허브공동체 상도동 밤골마을 80가구, W공동체 영등포 쪽방촌 50가구, 길공동체 명동 불우이웃 50가구, 요셉공동체 용산 쪽방촌 50가구, 하늘공동체 서울역 쪽방촌 50가구, J4U 공동체 남대문 쪽방촌 50가구, 갈렙공동체 동대문 쪽방촌 50가구, 폴투공동체 평창 불우이웃 30가구를 지원했다.

'사랑愛나눔'이 섬기는 이웃이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소재 지역교회,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 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를 지원했다. 이토록 많은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온누리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그 지역교회 이름으로 '사랑愛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만큼은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 청년들이다. 교회 이름을 벗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다.



'공간 산마루' 파송예배.

아름다운 연합, '공간 산마루'

2018년 3월 4일 공덕동 산마루교회 1층 카페 '공간 산마루'에서 청년공동체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공동체 이름이 '공간 산마루'다. '공간 산마루'는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가 교파를 뛰어넘어 연합해서 만든 산마루교회의 청년공동체다.

2017년 11월 19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산마루교회를 섬길 헌신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었다. 산마루교회에서 예배, 노숙인 사역, 주일학교, 영성 수련 등의 다양한 사역을 섬길 온누리교회 성도 60여 명이 파송됐다. 이날 파송 받은 청년들이 2018년 1월부터 산마루교회의 청년 예배공동체 창립을 두고 기도모임을 했고, 그해 3월 카페 겸 급식소 '공간 산마루' 개원예배를 드렸다.

'공간 산마루'에서는 온누리교회 새가족 등록 7주 과정을 4주 과정으로 압축해서 진행한다. 4주 동안 산마루교회의 역사와 정신, 영성일기를 배운다. 5주부터는 영성반(순예배)를 드리고, 영성일기를 지체들과 나눈다. 산마루교회 청년 리더십들은 수요일 밤에 모여 주일을 준비한다. '공간 산마루' 카페에서는 매주 주일 노숙인 식사 봉사를 한다.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예수 탄생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

매년 겨울이 되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눈코 뜰 새가 없다. 이웃과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웃과 함께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대표적인 사역이다. 매년 대학청년부 60~80개 팀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다. 전국의 지역교회, 보육원, 요양원, 미혼모시설, 쪽방촌, 군부대 등지에서 성탄절 특순, 식사 교제, 선물 나눔, 어린이 사역 등을 한다. 올해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84개의 팀이 참가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예배를 섬길 사람이 부족해서 성탄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형편이 몹시 어려운 농어촌교회 등지를 찾아가 성탄예배를 함께 드린다. 보육원과 요양원, 미혼모시설도 찾아가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준다. 노숙인, 쪽방촌도 찾아가 이웃들과 식사하고 예수 사랑을 전한다.



요셉청년부 등대교회 ODO(One Day Outreach).

요셉청년부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

요셉청년부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사역지로 흩어진다. 지역교회를 찾아가거나 차세대 사역을 섬기고, ODO(One Day Outreach)를 간다. 요셉청년부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역교회, 기관을 찾아가 섬기기 위해서다.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쉼터 등지를 찾아가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다. 차세대 교사가 필요한 지역교회와 기관에서 차세대 교사로 헌신한 청년들도 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와 노방전도, 식당 봉사 등을 돕고,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한다. / 홍하영 기자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0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 Message / 교계 및 기관 인사들

"역시 온누리교회는 다르다!"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교회는 이 땅에 생겨난 이래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주님께 충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은총의 세월 속에서 부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누리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역할을 한정시켰던 한국 교회 문화에서 온누리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정조준해서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분명하게 성장시켰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설립 목사인 하용조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교회가 창졸간에 된 일에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 목사님이 그 근심을 잊게 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이 걸어간 길을 아름답게 승계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계속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온누리교회는 '역시 온누리교회는 다르다' 는 것을 모두 공감하게 했습니다. 참 귀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계속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굳건히 사는 것을 보여주기를 마음으로 소원해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리더"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님의 온누리교회 사역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제가 지구촌교회 후임자로서 부임했을 때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 후로 매월 안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지난 3년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목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훈 목사님은 한국 교계 일 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을 잘 챙기는 것에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다 잘하실 수 있는지 놀랍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지혜와 사모님의 내조,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켜본 이재훈 목사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진 분입니다. 겸손한 인품과 뛰어난 행정력, 시대를 보는 통찰력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영성,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리더입니다.

10년이란 쉽지 않은 세월을 통해 온누리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앞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를 형제 된 지구촌교회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복음과도시' 사역을 하면서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목사님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들과 삶을 나누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또한 CGNTV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을 제쳐두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세워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십억의 설교 수익을 포기한 채 건강한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결단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주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몸을 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며, 단체의 불의에 앞장서서 맞서고, 시대의 비성경적인 이슈들 앞에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목사님 안에 빛나는 믿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열정의 비저너리이면서 성경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노인의 성숙한 지혜 속에서도 청년의 열정을 품고, 일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가면서 작은 교회를 친히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분입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0년의 걸음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10년도 더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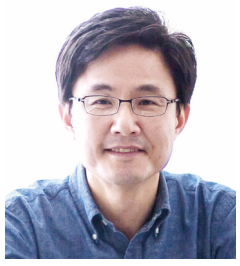


김운용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교부 이레니우스가 교회 리더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두움이 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지만, 이재훈 목사님께서 충만한 목사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분으로 우뚝 서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한국교회 130년 설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밤을 말씀으로 밝혔던 선배들의 삶과 사역, 설교사역을 4년여 동안 추적하면서 몇 차례 눈물을 흠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울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중에 동시대를 살았던 목사님 가운데 특별히 하용조 목사님과 옥한흠 목사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앞에서 부끄러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러러볼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바통을 쥐고 힘차게 달리시는 후발 주자가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시는 강력한 추진력, 깊이 있는 영성에서 나오는 말씀 사역, 따뜻한 가슴으로 주변을 아우르시는 리더십까지. 지난 10년의 세월을 잘 감당해 오신 것에 이재훈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복음 행전을 계속해서 써 가시길 빌며, 작은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기도와 실천으로 모범 보이는 귀한 리더"



이경호 회장
(한국창조과학회)

이재훈 목사님을 온누리교회에 세우셔서 하용조 목사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 2기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를 확고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성경적 창조신앙과 이 세상의 창조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도와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에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으로서 감사드리며,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이자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살아생전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창조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재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국 교회의 성경적 창조신앙과 창조질서를 세워나가는 귀한 리더로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장로로 함께 동역하게 되어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목사님의 지난 10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기대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위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분이 필요합니다!"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대표)

온누리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까지 온누리교회가 추구해 왔던 방향을 이어가며, 더 새롭게 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재훈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해 내신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력 교체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이재훈 목사님을 통한 리더십 교체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것은 실로 한국 교회 전체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열린 지도력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변화를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내린 영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도들을 겸손으로 섬기는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 갈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지도력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이런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1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 Message / 교계 및 기관 인사들

"우리의 자랑이요 사랑입니다!"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지난 10년은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재훈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함선의 키를 붙들고 주인 선장의 인도 따라 힘찬 항해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 노고를 축하드립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눈부신 창조성이 빛나던 공간, 그 목회 공간을 계속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눈물과 지혜, 기도와 간구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겸허한 몸짓과 소통으로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사랑 받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특별한 공동체로 한국 교회 안에 아름답게 머물게 했습니다. 그의 섬김의 리더십이 이런 사역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 내에서 리더십 승계의 모범이 되고 한국 교회의 빛과 희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한 항해를 다시 출범하며 세상이 코로나19로 온 난리가 된 뉴노멀의 시대,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사랑 받는 온누리공동체로 복되게 쓰임 받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진정 당신과 온누리교회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사랑입니다!

"산마루교회 부목사라 생각하십시오"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담임)

큰 종의 가장 큰 품성은 큰 능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아니 가장 큰 능력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십자가의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높은 영성인 팔복의 영성에 속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의 인품 역시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민12:3, 마11:29).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딤전1:15).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처음 만나던 자리가 늘 생생합니다. 당시 산마루교회는 노숙인들의 자립심을 키우겠다고 우리 스스로 헌금해서 목욕시설을 만들려고 3년 이상 저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헌금은 천천히 모이고, 주변 부동산 가격은 몇 배씩 뛰던 시기였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자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산마루교회 부목사라 생각하시고 함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큰 교회라고 모든 선교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은 작은 교회가 잘하도록 돕는 것이 큰 교회가 할 일이라 여깁니다."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한국 대형교회에 다 있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태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권위주의 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이름조차 모르던 때입니다. 저는 그 겸손함과 목회 철학을 보고,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이 탄생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재훈 목사님의 언행일치의 모습에서 이제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20년 전 작지만 영향력 있는 21세기 영적인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의 한계도 보고 있습니다. 선교의 언 바다 속에서 함께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언 바다가 되어버린 이 시대, 선장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쇄빙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뱃길을 열어 가리라 믿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뱃길로 온 누리의 많은 교회가 온누리교회와 함께 가게 되리라!

"어느 순간부터 동반자가 되어주신 목사님"



이장호 이사장
(아신대학교 이사장)

"목사님, 온누리교회 비전이 Acts29 아닙니까? 우리 아신대학교의 영어 명칭이 'ACTS' 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우리 ACTS를 통해 펼쳐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개방이사로 아시아신학대학교를 섬기기 시작한 지 1년여 뒤에 역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이재훈 목사님에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으로 신학교는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아신대학교는 초교파신학교인지라 교단의 지원이 없습니다. 마치 고아라고나 할까요? 하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학교 이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자주 맞대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호 목사님의 영문 이름의 첫 글자하고 저의 영문 이름 첫 글자가 같습니다. LJH입니다."

그냥 재미 삼아 하신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 아신대학교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여정에서 저를 동반자로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공석 중인 이사장을 선임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ACTS에서 공부했고, 선교사와 ACTS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를 적임자로 여겨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락했습니다. 개방이사가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ACTS를 통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임목사 되신 지 10년, 온누리교회가 귀히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변 사람들과 여러 공동체에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종입니다. 목사님 곁에 있으면 새 힘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년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온 세상과 열방을 품고 복음을 교회의 삶에 구현하려는 이재훈 목사님의 지난 10년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을 느끼며 축하드립니다.

한국로잔위원회를 섬기면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순수한 열정을 마음 깊이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원리를 목회현장에서 구현하고자 애쓰신 이재훈 목사님의 사역은 로잔운동이 표방하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복음의 총체성'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잔운동의 복음적 정신을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 전반에 확산하려 노력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말과 행동에는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이라는 로잔 정신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로잔 정신과 로잔 신학을 목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이재훈 목사님의 노력은 한국 교회와 젊은 세대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본질 회복을 추구하려는 로잔운동은 2024년 50주년을 맞아 제4차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이재훈 목사님의 섬김이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순례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



김영한 원장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이재훈 목사님의 위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위임되시고 온누리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화목하고 내실을 다지며 발전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故 하용조 목사님의 창립 유산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받으면서 사도행전적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시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민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퀴어문화가 서구 교회에서 밀려 들어와 우리 사회와 가정을 해체 시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가운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셨습니다. 한국 사회를 향하여 예언자적 정신으로 도덕적, 윤리적 신앙을 일깨운 것은 공교회 목회자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하시면서 부단히 독서하고 연구하는 깊은 영성을 지니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적, 복음적이면서도 많은 지혜와 신앙적 감화를 일깨워 주어서 영적 감화력이 큽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삶에서 실천적이고, 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넘어서 많은 성도가 즐겨 들으며 신앙을 강화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 내적 화목과 영적 성장 속에서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민족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2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 Message / 교계 및 기관 인사들

“한국 교회 위상을 바꾸는 리더십”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위임목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한국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을 훌륭하게 이어가심으로 온누리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재훈 목사님이 위기의 한국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셔서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혼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로잔위원회의 의장으로서 2024년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 로잔 4차 대회를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이 또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능히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교회를 향한 사랑,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러웠습니다. 세계 신학계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안목과 시대적인 통찰력, 분명한 성경적인 안목으로 인하여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화합의 리더십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깊어 누구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 모임이든지 이재훈 목사님이 참여하면 침체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훈훈하게 바뀝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력과 진취적인 생각,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은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노숙자사역에 과감히 교회를 개방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에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서는 모습,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과감히 수용하는 모습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을 바꾸는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년은 앞으로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믿어져서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낯선데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분”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님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에 관하여 생각을 깨워 축하하려니 가장 먼저 축하받아야 할 대상은 한국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하용조 목사님 후임 청빙 과정에 대해 서너 차례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시지 않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선택은 하나님의 손길에 사심 없이 대답하려는 이전의 모든 여정에서 한국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영역으로 더욱 ‘자연스럽고 확연하게 확장시키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 성도에 대한 부르심에는 성도 개인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포함된다는 단순한 진실이 한 지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장 온전하고 풍성하게 확증해 오신 온누리교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과 공사석에서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분이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를 멀찍이 떼어놓으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객관적 자리와 관계없이 세상에 복음의 얼굴을 맑게 나타내려는 열망에만 반응하려는 분입니다. 그것은 초대형교회 사역자로서는 ‘낯선데 아름다운 감동’ 같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그에 따라 한국 교회가 온누리교회를 가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재훈 목사님을 가졌다는 사실은 동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감과 고마움과 기대감을 선물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이러한 면모는 팀 켈러, D.A 카슨,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등이 사상적 리더로 섬기고 있는 TGC(복음연합운동)가 TGC Korea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누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그쪽에서 먼저 단연 이재훈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대로 이 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된 지 불과 3~4년 만에 아름답고 풍성한 형태로 교단과 교회의 크기를 넘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은 자연스럽게 무수한 과업들 앞에 서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일들을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한 가지 일’로 이해함으로, 분주하고 지칠 수 있는 현실을 자연스러운 풍성함과 함께 하는 열정으로 소화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의 위임 10주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훈 목사님을 한껏 응원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살아내고자 힘 다하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하는 지성을 소유한 영적 지도자”



김학유 총장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훈 목사님의 위임목사 사역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귀한 사역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토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적실한 대안들을 제시해 오신 목사님의 혜안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권위와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이재훈 목사님께서 펼치신 다양한 사역들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취임하자마자 펼치신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은 신뢰를 잃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한국 교회에 용기를 불어넣는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바보운동’은 내면의 성찰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들이 교인다워지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염원이 담긴 영적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모든 세속적 가치들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수한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예수바보운동’이야 말로 한국 교회의 재부흥을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바보정신’이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귀한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적 가치를 사수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셨습니다. 기독교 사학을 지키고,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시고, 기독교 생명윤리를 사수하는 등의 일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성경의 진리와 명제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해 오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가히 ‘실천하는 지성과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소유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은 자신이 죽은 지성과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성과 양심의 소유자임을 스스로의 삶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자체 개혁을 넘어 한국 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해야 함을 역설해 오셨습니다. 복음주의 선교운동인 로잔운동을 주도해 오시면서 교회가 지닌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을 펼침으로써 교회가 지닌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무들을 강조해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일들을 몸소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이 목사님의 목회와 실천에 깊이 녹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한국 교회의 영적 길라잡이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한결같음’의 영성”



김영애 권사
(한동대학교 글로벌후원회장)

이재훈 목사님의 지난 목회 10년을 생각해 보면 ‘한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겸손함과 따뜻함이 늘 한결같으십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故하용조 목사님은 여전히 온누리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시고, 저는 언제나 부교역자의 자세로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이럴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주일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무너지는 변화무쌍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사명을 계승하고 확장시켜 나가려는 소명의식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탄생한 온누리교회의 소명을 이재훈 목사님은 더욱 공고히 하심으로 우리들은 안심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재훈 목사님의 ‘한결같음’의 영성은 목사님이 푯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끊임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흐려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내조도 한결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 사역을 위해서 부디 목사님의 건강도 한결같이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예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재훈 목사님으로 하여금 일마다 때마다 한결같이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3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 Message / 교회리더십과 성도들

“예수바보행전과 킹덤 파이오니아”



박종길 목사
(서빙고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재훈 목사님이 제2대 위임목사로 사역하신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재훈 목사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고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많은 일을 잘 감당하시고 잘 이끌어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Acts29 비전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먼저 Acts29비전빌리지에 하용조 목사님 기념채플, 묘소, 도서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방문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한 하용조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을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훈련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러브소나타가 멈추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서울과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최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인천온누리교회 예배당을 송도에 건축했고, 남양주온누리교회도 다산신도시에 예배당 설계를 마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옆에도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차세대들과 성도들의 놀이터와 교제 공간을 만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섬기는 온누리M센터를 건축했고, 남양주와 김포, 평택, 화성에도 M센터를 세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선교부를 만들어서 국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에 선포했던 ‘예수바보행전’과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 때 설교하셨던 ‘킹덤 파이오니아’의 도전과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이재훈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과 인내, 은은한 사랑의 리더십”



정진호 장로
(당회서기)

10년 전 황망하게 하용조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온누리교회 제2대 위임목사님을 선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교회사에 남을 만큼 공정하고 아름다운 온누리교회 제2대 위임목사님이 세워지고 나서 이재훈 목사님 나이가 40대 초반이란 것을 알고 장로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워낙 장로님들과 오랜 기간 함께 사역해왔고, 노련하신 목사님의 이미지가 강해서 어림짐작 40대 후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 피부가 팽팽하시고 지금보다 날씬하셨습니다. 건강미가 있으셨지요. 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옆에서 지켜볼 때 건강을 더 잘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하고 안쓰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틈틈이 쉬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이재훈 목사님은 쉬지 않고 주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의적이면서 누구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리더십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회를 함께 섬기면서 느낀 이재훈 목사님의 리더십은 ‘경청과 인내의 리더십’, 그리고 ‘은은한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회에서 여러 안건을 다룰 때도 장로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본인의 말씀을 아낄 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집안에 힘든 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도우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낮은 곳, 어려운 지역 목회자들의 가정을 조용히 도우시는 긍휼의 마음도 크십니다. 그 누구보다 큰 영성과 리더십을 가지셨지만, 본인은 잘 안 나타내시려 하는 영성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회위원들도 조금씩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감동과 복음을 주시는 목사님”



최도성 장로
(2기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청빙 위원장, 한동대학교 차기 총장)

이재훈 목사님이 새로운 온누리교회 리더로 순종하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어받아서 온누리교회 목회가 잘 정착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늘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에 뿌리를 둔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복음, 복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영성이 깊어짐을 느끼기에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CGNTV, 이주민 선교, 사회선교 등 여러 가지 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셋째, 목사님 설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늘 하십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동입니다.

넷째, 목사님은 한결같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강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는 새로운 감동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잘 해주시고, 온누리교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10년이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20년, 그 이상의 먼 후일까지”



이상욱 장로
(서초A공동체)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제2대 위임목사님으로 위임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에 지난 10년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2011년 7월 31일(주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3부 예배까지 세 번의 설교를 하시고 이틀 뒤인 8월 2일(화) 홀연히 소천하셨지요. 너무나도 갑작스런 소천으로 교회 주변에서는 온누리교회가 제2대 위임목사 청빙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염려와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주변의 호기심과 관심이 큰 가운데에서 우려와 달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은 일사불란하게 제2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2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듯 절묘한 수순에 따라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해 10월 27일 이재훈 목사님을 제2대 위임목사로 선정하고 위임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소탈하고 겸양한 성품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솔선수범에 힘입어 온누리교회는 그야말로 시냇물 흐르듯 순조롭게 1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를 5대 가치로 삼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온누리교회 5대 가치가 이재훈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조화를 잘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영역을 넓혀 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아니 그 이상의 먼 후일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하나 된 모습과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열매로 더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과 그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성숙 된 영성으로 온누리교회가 잠잠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위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1226-1374호 1차 수정-3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8:46 페이지 14

Message 이재훈 목사 위임 10주년 축하메시지 / 교회리더십과 성도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목사님, 어느새 10년이 되었군요.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의 사역을 저 '젊은이'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온누리교회의 Acts29는 계속 전진하고 있고, 리더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자'는 '예수바보행전'을 구호로 시작해서 캠퍼스 교회 시스템의 정착,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산마루교회와 기독 OTT '퐁당'을 통한 나눔 사역까지 일련의 과정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뿌리를 내리고 온누리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와 나라가 처한 상황이 우리 모두를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합니다.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시면 저희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CGNTV도 이 시대 선교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CGNTV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CGNTV를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3년 전 기독 OTT '퐁당'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목사님의 비전을 따른 것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며 정말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GNTV의 4만여 후원자들, 드림온맘 기도팀원들, 드림온핸즈 자원봉사자들, 운영위원과 실행위원을 포함한 CGNTV 공동체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목사님의 10주년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 자극하는 소금과 빛 역할을"



김진국 장로
(한강공동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일상과 신앙생활도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재훈 목사님은 바른 안목과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예배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19가 세계적으로 만연된 현실에서도 CGNTV, 유튜브 채널, 기독 OTT '퐁당', 두란노서원 출판물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가 온누리교회 9시 예배를 집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도 온누리교회 9시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초기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닐 때 하용조 목사님의 요청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때는 당연하던 교회 시스템들을 IT를 접목해서 개선하기를 원하신다며 본인이 구상하신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저는 IBM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으로 조언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온라인 공동체', 기독OTT '퐁당', '메타처치' 등 이제는 제가 따라가기도 바쁜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종종 다른 교회 장로들이 "온누리교회에는 왜 그렇게 젊은 성도들이 많냐"고 물으면 "목사님들 설교가 좋아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재훈 목사님의 리더십에 매료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와 한국 교회를 자극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재훈 목사님을 위하여 목사, 장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교회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저도 기도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유석인 권사
(서빙고공동체)

목사님! 10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부터 목회 훈련을 잘 받으시고, 위임목사님이 되셔서 여러 풍파를 이겨내시며 든든히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국에 올바르고 확고한 입장으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허영오 장로님(남편) 소천하시자마자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때 하늘에 마른 무지개가 떠서 허 장로가 천국에 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느라 어려울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회포를 푸신 것도 기억납니다. 다 이때를 위함이었나 봅니다. 작은딸이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늘 기도제목이었는데 목사님이 돌봐주시고 교회적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부족한 저를 높여주고 큰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늙은 저를 늘 챙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계속 온누리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겸손, 부드러움 자유함의 영성"



박종익 집사
(마포공동체)

이재훈 목사님을 온누리교회 제2기 위임목사님으로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와 세상 문화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끗함, 단순함, 정결함으로 교회 문화를 지켜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재훈 목사님의 영성과 성품은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포공동체를 담당하실 때의 교제와 틈틈이 이재훈 목사님의 사진을 찍으며 제가 경험하는 영성은 겸손, 부드러움, 자유함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성도들과 만나실 때는 격 없이 소탈하고 다정다감한 분입니다. 예전에는 곁에 가야 느낄 수 있었던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유한 이재훈 목사님의 영성이 이제는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느껴져 감사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미한 것은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는 영적 어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 큰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많은 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이재훈 목사님 마음에 한없이 부어져 그 사랑의 힘으로 건강과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374호 20211226 게시판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7:03 페이지 2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병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최종현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혜미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노태규 네트라
뉴이엔은 로빈슨 마주마누룽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싱루아마눕 사가르 윌리엄 이원준
이성광 이진이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차제이미
최일관 최정현 추대식 크리스타안
허루슬란

◈**전도사(파트)**
강하람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정무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노동준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소망
박새미 박영규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방성주 배병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찬 서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송예찬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양주영 양현모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우승민 우진실
유성하 윤석무 윤신혁 윤슬기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세영 이송희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형목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정성원
정연영 정준혁 정에스더 정연상
정예은 조은광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선미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캐머런 요네어
한영철 한용태 허영은 허정현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하용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관식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봉국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지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환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구인 강일영 강일하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민
배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신영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욱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미은
박승홍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
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 영
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제 손정래 신솔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12/18(토) 경기A 이동엽 성도 모친상 고 김용자
12/18(토) 강남B 최창연 권사 모친상 고 김재진
12/19(주일) 용산 김신일 성도 부친상 고 김경년
12/20(월) 이촌 전효진 성도 시모상 고 문원임
12/20(월) 송파B 이종해 성도 부친상 고 이교달
12/20(월) 서초B 마소연 권사 모친상 고 최영희
12/22(수) 푸른누리 남소영 성도 모친상 고 박남형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 자립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마을수호봉사단 모집
내용: 프로그램 보조, 홍보 컨텐츠 제작, 방역 활동 등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강유림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초원PM(070-4304-6913)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 나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내용: 해외저작권 관리 1명, 도서 광고 홍보 디자인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각 1명, 주5일 근무
근무지역: 서울 서빙고동
서류접수: 자사 홈페이지 참조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 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 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이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1374호 20211226 게시판_온누리신문 21. 12. 24. 오후 7:03 페이지 3

2022년 1월 1-2일, 8-9일
선교헌금작정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



선교헌금 작정 방법

1. 현장 작정 (2022년 1월 1-2일, 8-9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2. 온라인 작정 (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선교헌금작정

3. 전화 작정 (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② 처음 작정하시는 분은 <신규 작정란> 작성
③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정란>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헌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②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 3215-3616